

# CONTENTS

KOSCA LETTER Vol. 13

코스카레터 제 13 호



2017년 Vol. 13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11



56

## PART 1

- 04 1. 권두사
- 하태경 국회의원
  - 김종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PART 2

- 06 2. 협회소식
- 14 Special.01 > 부산의 명소
- 16 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3 Special.02 >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24 Special.03 > 쉬어가는 유머
- 25 Special.04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26 4.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17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현황
- 29 Special.05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30 Special.06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PART 3

- 32 5. 전문건설인의 삶
- 건삶인 23호 문기찬 \_ 수영석재산업(주) 대표이사
  - 건삶인 24호 유재봉 \_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 36 6. 건설산업정보 + Part.1
- 37 Special.07 > 이달의 경영어록
- 38 Special.08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
- 40 7. 건설산업정보 + Part.2
- 50 8.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2 9. 회원사 질의·응답
- 54 Special.09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 제10편: BIM(빌딩 정보 모델링)
- 56 10. 특별기고
- 2017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기고
  -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 58 Special.10 > 그것이 알고 싶다

## PART 4

- 59 Special.11 > 건강지킴이
- 60 11. 회원사 현황
- 62 12. 건설업자의 책무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의무
- 64 Special.12 > 2017년 건설업 교육이수 안내
- 65 Special.13 > 업무단신+3/4분기 주요일정
- 66 13. 회원사 참여 마당

##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기울이겠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해운대구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먼저 이번 7월에 발간되는 코스카레터 1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지역 경제 발전과 올바른 건설정책 수립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과 1,800여 회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을 하는 일선의 주체로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의 주요한 주체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설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이러한 경기침체에도 지난 3년간 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 들어서 전문건설업체가 중소기업 R&D투자확대 요청, 건설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수급문제, 건설근로자 고용창출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원하도급자 간 상호보증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협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카레터 제13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전문건설인을 대변하는 열린 광장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인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건설업 발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코스카레터는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소개하고, 건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실무능력향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시설물 건설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문화 창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을 적용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관련 세계적 동향은 전통적인 건설산업에 IT기술과 신소재 등을 융합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도 기술력 향상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의 핵심가치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인의 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력 향상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김종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체회의

부산시회는 4월 27일(11:30 / 골든뷰뷔페)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등 주요 업무를 보고했으며, KOSCA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협회 조광일 회장 및 오병용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표준품셈 보고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 2017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는 5월 11일(18:00 / 초원농원 서면점) 「2017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회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및 2017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 하도급법령 및 분쟁대응 순회 강습회

부산시회는 5월 12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령 및 분쟁대응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는 협회 중앙회 건설정책부 문경주 부장과 공정거래정책부 강성주 과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법령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분쟁 시 대응방법,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습회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부산지역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KOSCA 건설교육센터에서는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5월 18일(09:00 / 부산교원빌딩 대교육장) 교육대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회원사 등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일정 등 관련 내용 안내와 부산시회 소식지(코스카레터)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건설업 윤리경영, 계약법 및 하도급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실시됐으며, 참석자들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관련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제25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코스카 부산광역시회(회장 김병철)와 광주광역시회(회장 송성홍)는 지난 6월 1일, 2일 양일간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 3층 천왕봉홀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 연수회는 지난 '93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주 양 시회가 친선교류 결연을 맺은 이후 올해로 25년째로, 강규형 3P자기경영연구소장의 「대한민국 독서혁명」, 진재영 공인노무사의 「건설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특강과 함께 화엄사, 사성암, 운조루, 화개장터 등을 탐방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시회 송성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양 시회 회원님을 모시고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부산·광주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양 시회의 친선교류의 장을 열어주시고 화합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광주시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 연수회를 통해 양 시회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 시회 회원사 모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 2017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부산시회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2일(목)부터 6월 28일(수)까지 4박 7일간 두바이와 스페인의 주요 건축물 등을 둘러보고 그 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시찰단은 두바이의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시작으로 국내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참여해 우리에게 더욱 유명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세계적인 천재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구엘공원'과 그의 사후 100주년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유명건축가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가족 성당'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번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은 새로운 건축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두바이와 스페인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접함으로써 과거와 현대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회원사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친목도모와 함께 협회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 및 회장단은 4월 3일 부산광역시 김종경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철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국 최다발주 성과 달성과 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시 하도급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경 건설본부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살아야 부산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부산광역시 시책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의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한 중양군 종합건설업체 본사 방문

부산시회는 4월 24일, 25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양군 종합건설업체를 방문하여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부산시회와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은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동부건설(주), (주)한화건설, 롯데건설(주) 본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재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현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부산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실질적인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들은 협회와 부산광역시가 서울 본사까지 방문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향후 부산전문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 방안을 강구하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중양군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모집 정보 등을 시기별로 분석·안내하여 회원사의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 및 회장단은 5월 11일 부산교통공사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시책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도시 : 2017. 6. 8 (목) 오후 2시 장소 : 부산시회의 대회의실  
주최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도시공사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도시 : 2017. 6. 8 (목) 오후 2시 장소 : 부산시회의 대회의실  
주최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도시공사



###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시회는 6월 8일(14:00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강당)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함께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부산 정비사업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영산대 서성수 교수와 동의대학교 최은열 교수가 각각 '도시재생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동명대학교 강주연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균 부산시 도시정비과장, 김진영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 김형겸 자산특수토건 대표이사, 이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 채창호 대성문 대표이사, 하종근 예서건설 대표이사가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토론회자로 나선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대표이사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업체 70% 이상 하도급 참여를 위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70% 이상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작성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확대(2~3% → 3~5%) △재개발·재건축 현장별 구·군청 하도급현황 관리 담당 공무원 배치 및 격월 주기적 현장방문 △재개발·재건축 현장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80% 이상인 업체는 부산광역시시장상 포상 △부산전문건설업체 시공참여 사업에 대해 최대 30% 지방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등에 강력히 요청했다.



### 2017년 상반기 대형공사장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는 6월 20일(화)부터 6월 23일(금)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8개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설현장과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4공구를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이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위촉한 공정하도급 옴부즈만도 함께 참여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현장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각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협회 소식

### ❖ 회원소식

#### 2017년 전건회 회장배 국내 원정경기

부산 전문건설골프회(전건회)는 2017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회장배 국내 원정경기를 가졌다. 이번 국내 원정경기는 전건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 C.C, 해피니스 C.C에서 경기를 가지며, 전문 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회원 간의 친목을 다졌다.



### ❖ 사회공헌활동

####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병철)는 지난 5월 발생한 강원도 강릉과 삼척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 50만원을 KOSCA 강원도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병철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며 작은 도움이나마 산불 피해의 조속한 사태수습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올여름, 송도해수욕장의 즐거움에 풍덩!

## 부산관광공사, '7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

# 松島



▲ 송도구름산책로

서구 암남동의 송도해수욕장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29년 만에 복원된 '해상 케이블카'가 6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코스로 급부상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구름산책로', '해상다이빙대' 등 특화된 관광 인프라<sup>1)</sup> 또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송도해수욕장은 올여름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 '86m 하늘을 날다'

29년 만에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서편 암남공원(상부 정류장)에서 동편 송림공원(하부 정류장)까지 1.62km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최고 86m 높이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풍광이 압권이며,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야경도 일품이다.

총 39기의 케빈(8인승) 가운데 13기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케빈으로, 전체가 투명 유리로 돼 있어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다. 특히, 해상에 설치된 2개의 해상지주를 오르내릴 때는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 상부 정류장에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 사이언스 뮤지엄 '송도 도펠마이어 월드'가 마련돼 있다. 75평 규모의 이 전시관에는 케이블카의 역사,

### » 송도해상케이블카



▲ 송도해상케이블카

과학, 산업동향, 미래산업이 펼쳐진다. 전망대에서는 조만간 세계 최초의 공중그네 체험 시뮬레이터 `VR스카이스윙`도 선보일 예정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예약 문의: 468-8383)

### '바다 위를 걷다'

## » 송도구름산책로

지난 2016년 6월 완전히 개통한 송도구름산책로는 국내 최장의 해상 산책로로 구름다리구간(193m)과 등대구간(104m), 그리고 연결구간인 거북섬구간(68m)을 합쳐 총 365m에 달한다. 이곳을 걸으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바닥이 강화유리와 디자인 그레이팅으로 설계돼 파도치는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여 짜릿한 스릴감도 맛볼 수 있다. 등대구간에서는 휴식공간과 포토존이 마련돼 탁 트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추억을 남겨보자. 야간에는 색색의 경관조명이 색다른 볼거리다. 연결구간인 거북섬에는 젊은 어부와 용왕의 딸 인룡(人龍)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청동조각상, 거북이머리인 장수굴, 알을 깨고 나오는 거북이 등 스토리텔링을 간직한 다양한 조형물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바닷속으로 '침병'

## » 송도해상다이빙대

전국 유일의 해상 다이빙대인 송도해상다이빙대는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7월 송도해수욕장 동편 옛 해상다이빙대가 있던 자리에 복원됐다. 인근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착안해 어미거북이(높이 5m)와 아기거북이(높이 3m) 모양으로 설치돼 있어 자신에게 맞는 높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단, 이곳을 이용하려면 백사장에서 다이빙대까지 약 70m가량을 헤엄쳐가야 한다.

매년 여름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포즈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다. 개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인 9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카라반에서 하룻밤

## » 송도오토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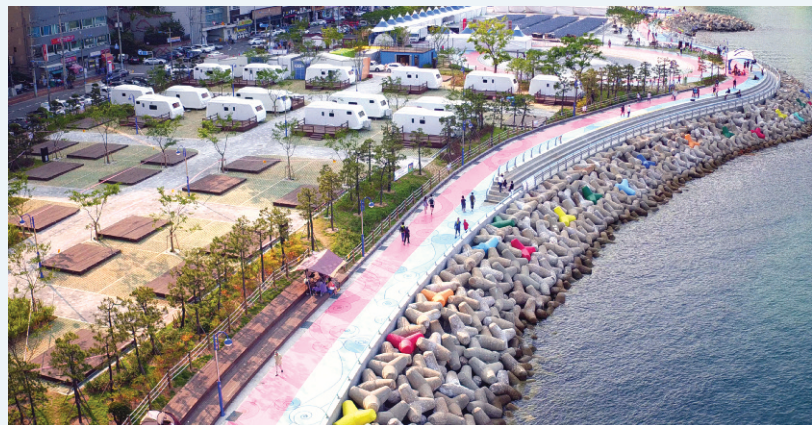
오는 7월 1일 개장하는 송도오토캠핑장은 송도해수욕장 서편의 송도오션파크 내에 조성됐다. 총 6,939㎡ 규모로 카라반 사이트 16면과 텐트 사이트 17면(2인용 미니카라반 사이트 10대 포함) 등 총 33면으로 구성돼 있다. 미니카라반을 제외한 카라반 내부에는 주방·샤워실·화장실이 있으며 침대·탁자·소파·TV·냉장고·전자레인지·밥솥 등도 완비돼 있다. 이 가운데 스파 카라반에는 월풀 욕조가 설치돼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 최고급형이다.

또 오토캠핑장 내에는 공동 취사장·샤워장·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전기 및 통신시설도 설치되어 텐트 사이트 이용자들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 파티도 물론 가능하다. 그늘막·캠핑 의자·바비큐그릴 등 필요한 장비나 도구들을 대여할 수 있으며, 각종 먹거리도 근처 상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송도오토캠핑장 예약 안내: [www.송도오토캠핑장.com](http://www.송도오토캠핑장.com))

자료제공\_ 서구청 문화관광과, 부산에어크루즈



▲ 송도구름산책로



▲ 송도오토캠핑장

1) 부산시 서구는 송도해수욕장을 비수기가 없는 사계절 국민여가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총 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거북섬 테마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본 사업을 통해 거북섬과 연륙교 정비, 해상 카페(배 조형물) 설치, 송도구름산책로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관광 인프라가 속속 구축됐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남해 EEZ의 골재채취 허가 확대를 위한 탄원서 제출

#### 정부 및 국회에 탄원서 제출

부산시회는 4월 18일 남해 EEZ 내 골재채취 허가 확대를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340여 개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정부 및 국회 등(중앙회 경우)에 제출했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가 지난 1월 16일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가 국토교통부가 2월 28일자로 1년간 650만㎡를 채취토록 허가했으나, 올해 허가량은 동남권의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 등이 '14년 대비 44%나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 모래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 공사는 정부예산의 증가, 민간 공사는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그리고 건설 관련 종사 근로자 15만 명의 일자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은 지난해 국가 경제성장률 2.7% 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동남권의 1.6% 성장률 역시 조선 및 기계부문의 부진,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서 건설업이 큰 역할을 해왔으나, 성장 동력인 건설산업이 모래 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이 둔화된다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더욱 지속시킬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계의 모래 수급 문제가 전후방 연관 산업, 나아가 국민 및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남해 EEZ에서의 모래 채취 허가 확대와 지속적인 민수용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사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정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한 것이다.

### ◆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정책 반영 건의

####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시공참여자체도 대체제도 도입 등

부산시회는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바른정당 부산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전국 4만여 전문건설업체 및 300만 전문건설 가족의 염원과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문제점 개선 방향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건설산업이 최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면해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부산시회가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 의무화 및 범위 확대, 건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 소규모복합공사 범위(4억원→10억원) 확대, 부대공사 범위(3억원→5억원) 상향 등 총 27개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 물품용역계약에 건설공사 포함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근절 건의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안내

부산시회는 5월 10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용역계약에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13.) 및 행정자치부 예규(2016.11.16.)를 개정·시행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를 물품·용역에 포함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공사를 물품 또는 용역에 포함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하고 향후 물품·용역 발주 시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 조경수목 고사에 따른 하자분쟁 대응책 마련 건의

### 조경식재공사의 하자유무 판정 지침 마련을...

부산시회는 5월 10일 협회 중앙회 및 조경식재공사협회에 조경수목 식재 이후 수목 고사 시 하자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조경수목 고사에 따른 하자분쟁으로 많은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침의 부재로 발주처의 일방적인 하자보수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 관련 지침의 부재로 조경식재공사업체에서 시공한 건설공사 현장에 하자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에서는 조경수목은 살아있는 생물임에도 식재 후 발주처의 유지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사까지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무리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조경식재공사업체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건의

#### 기업진단 시 예금, 재고자산 평가기준 완화,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개선 등

부산시회는 5월 17일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개선, 기업진단 시 예금과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완화 등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을 중앙회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세부 건의내용으로는 △건설업 추가등록 시점에서 기술자 및 자본금에 대한 중복인정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자의 범위에서 전문경영진단기관 제외 △기업진단 시 예금의 평가를 현행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으로 평가하는 것을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기준 완화 △기업진단 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토록 평가기준 완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 등이다.

###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입찰 공고 시 공개 준수 건의

부산시회는 5월 24일 부산지역 34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 공고 시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계약 원가심사 시 투명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2014.8.5.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공사 계약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찰 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지역 대부분의 구·군을 비롯한 발주기관에서는 현재까지 건설공사 입찰 공고 시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삭감을 위한 행정절차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본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와 구·군청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 시 계약심사 결과서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등 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추진

부산시회는 5월 24일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등 정비사업 발주 시 부산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장전3구역, 대연2구역 등 12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부산지역 1,800여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수도권지역 중앙군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 또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역외 유출되는 심각한 실정이며, 부산전문건설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지장물이설, 정비기반시설 등의 시공업체 선정 또한 자금력이 우수하고 시공사와 연고지가 같은 수도권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부산지역 170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를 포함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준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일감 확보와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브랜드와 무관한 석면해체, 지장물이설 및 철거 등의 시공업체 선정 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화장실 개보수공사(리모델링) 발주 시 업역준수 건의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642개 초·중·고등학교에 협조요청

부산시회는 5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64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교사보수공사 등)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학교에서 발주하는 교사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건의

####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요청

부산시회는 6월 12일 2017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에 대해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광역시는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동 제도로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부산광역시 시장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부산광역시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행정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의 시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2017년 하반기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발주되어 실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 목적물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단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통한 초저가 하도급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의한 것이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화

### 공공기관,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미흡

부산시회는 6월 20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 ④ (생략)
-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없어 수급인이 여전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전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구 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대상 공사 중 교부율
공공공사	89.3%
민간공사	77.3%

자료출처: 2016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연구기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5항의 의거 공제조합 및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해지한 경우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및 문서 등을 통해 보증서 발급 내용이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통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보증기관 등에 협조(중앙회 경유)를 요청했다.



###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80% 이상인 우수업체 시장포상, 용적률 인센티브도 3%~5%로 상향 건의

부산시회는 6월 21일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확대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역업체 하도급률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상정안건을 제출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사를 수도권 지역의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여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부산전문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 포상을 업체 수로 제한하지 않고 하도급 참여율이 80% 이상인 우수한 건설현장 시공사(종합건설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장 포상을 실시하고,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80%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3%에서 5%로, 70%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2%에서 3%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2017년도 임단협 관련 철콘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탄원서 제출

####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

부산시회는 6월 21일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현실적 제도개선을 위해 부산시회 소속 400여 회원사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중앙회 경유)에 제출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6개 건설 관련 노동조합으로부터 '17년도 임금단체협상 교섭 요구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중앙교섭 요구에 철콘업계는 5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현장별 교섭을 요청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물론, 중앙교섭 관철을 위해 태업, 불법외국인 고용 관련 현장 신분증 검사 및 진정·고발, 노조 상경총회 및 총파업 예고 등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동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공기지연은 물론 전국적 공사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가칭)전국 철·콘 전문건설업 연합회(지역별 협의체모임)'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 업계의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현실적 제도개선을 청원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전 회원사의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임금단체협상 결과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여 부산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취합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_ 김미선

**Tip.01**

**한여름 차 내부 열기를 제거하려면?**

무더운 여름 태양 아래 주차되었던 차를 탈 때면 가득 찬 열기에 숨을 쉬기도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 보아도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이럴 때 공기순환 방식을 이용해서 쉽게 차 내부 열기를 내보낼 수 있다. 먼저, 조수석 창문을 끝까지 내린다. 그리고 운전석의 문을 열고 부채질하듯 5번 여닫는 것을 반복한다. 문이 펌프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반대쪽 창문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는 원리다.



USEFUL  
TIPS IN  
YOUR LIFE

**Tip.02**

**유리의 스티커 제거에는 '선크림'**

자동차 유리나 유리병에 붙은 스티커를 떼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더워진 날씨에 끈적끈적해진 스티커를 쉽게 떼려면 선크림을 이용하면 된다. 우선, 스티커 제일 바깥면의 비닐막을 제거한 후, 남은 종이 부분 위에 선크림을 골고루 발라준다. 5분 정도 지난 후, 물티슈나 젖은 걸레로 문질러 닦아내면 스티커가 깔끔하게 제거된다. 오래된 선크림이 있다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유용하게 사용해보자.



**Tip.03**

**벌점 깎아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보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STORY 1.

## 한국 언론의 재해석

- △ **속보** = 빠르게 베꼈다
- △ **단독** = 혼자 베꼈다
- △ **종합** = 여러 기사를 베꼈다
- △ **화제** = 아무도 관심 없는
- △ **충격** = 받을 일 전혀 없는
- △ **최신 트렌드** = 작년에 유행한
- △ **블루오션** = 레드오션
- △ **~의 비결** = 누구나 다 아는 상식
- △ **취재 결과** = 연합뉴스를 뒤져본 결과
- △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 = 네이버에 두어 번 검색해본 결과
- △ **근황이 포착됐다** = 인스타그램에서 봤다
- △ **구설에 올랐다** = 트위터에서 봤다
- △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 아니면 말고
- △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놈 마음에 안 드는데
- △ **논란이 되고 있다** = 여기 악플 좀
- △ **국민의 대다수가** = 이 사무실을 한국이라고 치면



STOR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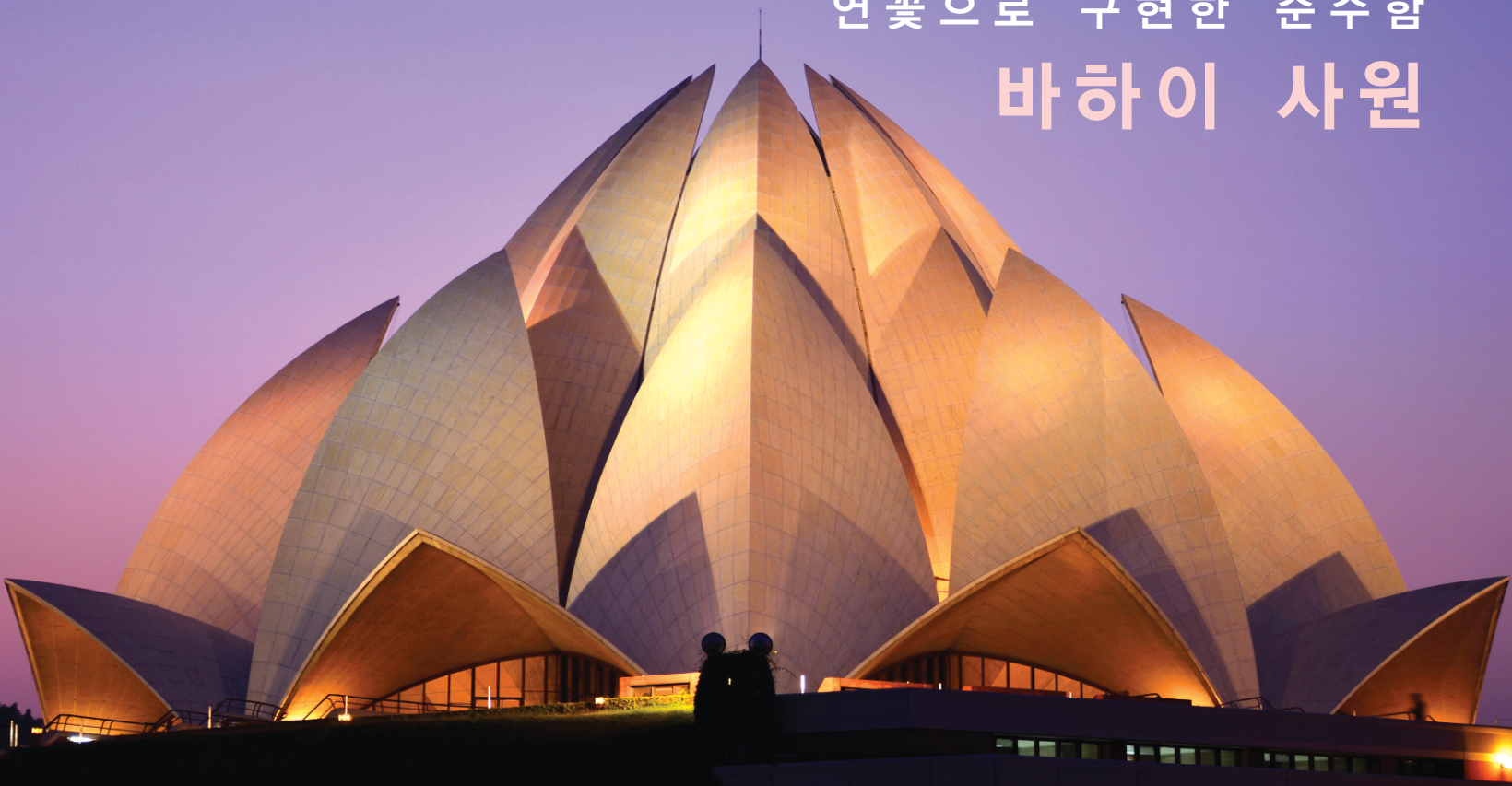
##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술 한잔 걸치고 밤늦게 택시를 탄 남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당황하기 시작했다.  
 난감해진 남자는 잠시 생각한 후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잠깐 저기 편의점 앞에 좀 세워주세요.”  
 “왜 그러시죠?”  
 “5돈짜리 금반지를 택시 안에 떨어뜨렸는데 잘 안 보여서...  
 라이터 좀 사려고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왔는데...

택시는 가고 그 자리에 없었다.

연꽃으로 구현한 순수함  
바하이 사원



B A H A ' I L O T U S T E M P L E

● 인도 뉴델리에는 연꽃 모양을 닮은 독특한 건물이 있다. '현대 인도의 타지마할'로 불리는 바하이 사원이 바로 그곳이다. 이 사원은 이란 출신의 캐나다 건축가 파리보즈 사바가 설계했고, 1980년에 착공해 1986년에 완공됐다. 파리보즈 사바는 바하이교의 믿음을 상징하고자 연꽃 형태를 사용했는데,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은 순수함을 상징한다. 인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져 왔다.

바하이 사원은 105,000m<sup>2</sup> 넓이에 달하는 불규칙한 대지 위에 세워졌다. 9면의 기단은 각각의 연꽃 위에 세워져 있어서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한다. 반쯤 핀 듯한 27개의 꽃잎은 콘크리트 위에 흰색의 그리스 대리석이 덧입혀진 것으로, 꽃잎의 다양한 곡선 때문에 대리석 조각이 각각의 방향과 모양에 따라 입혀진 후 조립되는 공법으로 완성됐다. 중심부의 꽃봉오리 형상은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었고 꽃잎들이 이를 보강하는 형태다. 사원의 총 높이는 35m에 달한다.

사원에는 하루에 4번의 기도시간이 있는데,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단, 사원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침묵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글\_ 김미선





##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17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현황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08 (2017.01.18.)	포엠(주), 아이에스동서(주), 대림산업(주)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V-타이의 설계 및 원터치 클립을 이용한 V-타이 시공기술	철근콘크리트 부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포함)의 내부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한단 90°, 타단 135°의 갈고리를 갖는 크로스타이의 대체를 위한 V-타이의 설계기술. 이 기술에서 제시하는 V-타이 배근 기둥의 내력과 연성은 동일한 조건의 크로스타이 배근 기둥에 비해 동등 이상이지만 V-타이의 전단저항은 고려하지 않음. 현장에서 V-타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철근에 고정할 수 있는 원터치 고정용 클립제품을 함께 개발하였음. V-타이를 포함한 횡보강근 배근상세 및 휨, 압축, 전단내력에 대한 설계절차는 기본적으로 ACI 318-14의 설계기준을 준수하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적 설계모델 및 실험검증에 기반한 제안모델을 따른다.
809 (2017.01.20.)	GS건설(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로써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 시 대피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810 (2017.01.24.)	삼보굴착(주), (주)한국종합기술	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강관 굴진 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임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11 (2017.02.07.)	(주)세움특수건설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	접합부 및 시트와 도막의 복합층 개선을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펀칭가공된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폴리복합시트를 액상형 도막층에 구조 결합한 복합방수공법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접합부 시공 시 별도의 결합재료가 아닌 개량형 폴리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된 접합부 연결 테이프를 적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락 구조를 형성함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킨 신기술
812 (2017.02.07.)	(주)장헌산업, 한라산업개발(주)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돌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박스 거더 교량공법(Nodular Girder)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돌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
813 (2017.02.23.)	이정테크(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 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
814 (2017.04.28.)	(주)플러스산업	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블록아웃용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라이닝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난 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공법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15 (2017.05.19.)	(주)강물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 공법(PIP-3D)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에 의해 공장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1본씩 부설위치까지 원치 및 전동차로 이동 삽입 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816 (2017.06.01.)	이엑스티(주), (주)삼안, (주)포스코건설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oint Foundation, 'PF' 공법)
817 (2017.06.09.)	(주)파일텍씨앤이, (주)동일기술공사, (주)한진중공업	네 개의 분할 원호판과 보강콘크리트 하부판에 수직 철근이 정착된 합성형 덮개판 공법	중공원판이 네 개로 분할된 원호형 덮개판이 말뚝머리 강관단면(직경 D406, D508, D609)에 걸침(걸침 폭 2mm 이상) 용접되고, 덮개판의 하부가 1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강되며, 수직철근이 보강콘크리트 하부지지격판에 정착되어 원호판의 응력집중을 완화하여 기존 공법의 덮개판 중량보다 경량 덮개판으로 대체한 두부보강 공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 Healing Movie



## 1관 군함도

개봉 | 2017.07.26.  
 감독 | 류승완  
 출연 |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지옥섬 군함도,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다!**

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 반도호텔 악단장 '강옥(황정민)'과 종로를 주름잡던 주막 '칠성(소지섭)' 등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군함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배가 도착한 곳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던 '지옥섬'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들이 해저 1,000m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하는 군함도. 한편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자 OSS 소속 광복군 '무영(송중기)'은 독립운동 주요인사 구출 작전을 지시받고 군함도에 잠입한다. 일본 전역에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고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조선인들을 갯도에 가둔 채 폭파하려고 한다. 이를 눈치챈 무영은 조선인 모두와 군함도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 2관 택시운전사

개봉 | 2017.08.02.  
 감독 | 장훈  
 출연 | 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류준열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

11살짜리 딸을 키우는 '만섭(송강호)'은 낡은 택시 한 대가 전부인 서울의 정 많은 택시운전사다. 어느 날,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큰돈인 10만 원을 준다는 외국인 손님을 만나게 된다. 그 손님은 독일에서 온 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된 만섭은 그렇게 우연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보도한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역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강호는 "좋은 부담감으로 작품에 임했다. 뜨거움과 열정, 열망을 많은 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출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정리\_ 김미선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정리\_ 김미선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6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잠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각 13,800원

이 작품은 인간이 감히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대륙, 잠의 세계로의 탐험을 그렸다. 꿈을 제어할 수 있거나 꿈을 통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리지는 스펙터클한 꿈속의 모험 소설인 이 책은 1980년대, 그가 과학 전문 기자 시절에 썼던 자각몽자에 관한 르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잠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및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알게 된다.

\*2위는 지난 호에 실린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습니다.

## 말의 품격



이기주 지음 | 황소북스 | 14,500원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 냥 빛만 값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이 책은 경청, 공감, 반응, 뒷말, 인향, 소음 등 24개의 키워드를 통해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낸다. 고전과 현대를 오가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이기주 작가 특유의 감성이 더해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전한다.

BEST SELLER

BOOK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 민음사 | 13,000원

조남주 작가는 이 책에서 30대를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을 한 축으로, 고백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기사들을 또 다른 축으로 삼는다. 또한, 1982년생 김지영 씨로 대변되는 '그녀'들의 인생 마디마디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진실하게 묘사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제도적 성차별이 줄어든 시대의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고 억압하는지 보여 준다.

##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 15,000원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한 걸음 앞서 시대와 삶의 과제를 고민해 왔던 유시민이 정치시장을 떠나 지식 시장으로 복귀하여 내놓은 첫 책이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도덕을 설교하거나 당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상이나 이론을 설파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드러내 놓고 비판하거나 위로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아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수영석재산업(주)

대표이사  
문기찬

# 느리지만 힘차게 나아가는 우직한 건설인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에게서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느림’의 지혜가 풍긴다. 뻑뻑하지가 않고 여유가 넘친다. 그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 뚜벅뚜벅 느리지만 힘차게 나아간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특유의 끈기를 지녔기에. 문기찬(69) 수영석재산업주식회사 대표의 면면이다. 그는 돌을 만진다. 그의 삶을 온전히 돌에 투자했으니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 그 인내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는 고향이 청주인 ‘충청도 양반’이다. ‘남쪽 끝자락까지 내려가서 인생을 살아보자’며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게 1969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어가니 이제 고향이 다 되었을 법도 한데 그의 모습과 말투에선 아직도 수더분한 ‘충청도’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청주 우암동에 몰려 있는 석공장들을 돌아다니며 돌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서울 생활 3년을 거쳐 부산에 자리 잡았다.

“송도 아랫길에 있던 부산에서 가장 큰 석공업체에서 일했어요. 당시만 해도 석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일거리가 없어 절반은 놀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항상 호재가 따르는 법. 1970년대 부산에서 건축붐이 일기 시작했다. 대연동과 남천동에서 시작된 열기가 광안리

일대까지 뻗어 나갔다. 석재사업도 당연히 날개를 달았다. 당시만 해도 면허가 없던 시절이어서 일도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건축주들의 입소문에 의존했던 시절, 그는 ‘오야지(작업반장)’로 이름을 날리며 부산 주택건설계에 발을 들여놨다.

“영도 태종대 입구에 순직선원위령탑 조성 공사에 제가 참여했죠. 전체 공정의 10% 이상을 담당했으니 비중이 컸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친필 휘호를 봤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감격스런 순간이었어요.”

한 건설회사 공동대표를 맡아 일을 하던 문 대표는 1992년 전문건설업 면허를 따면서 수영석재산업을 설립해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에 들어섰다.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지금은 기계와 컴퓨터 작업으로 쉽게 석재작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으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엄청난 고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월석을 우마차에 실어 공장으로 가져오는 것도 힘들지만 작업은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으로 구멍을 촘촘히 파고 썰기를 박아서 돌을 깨야 하는 고된 작업이죠. 그다음 정으로 다듬고 곱게 다듬질하여 돌을 숫돌 같은 것으로 갈아 매끈하게 다듬어야 했던 시절도 겪었습니다.”

문 대표는 단단한 우리나라의 화강함을 무척 사랑하고 아낀다. 천년을 견디는 단단함과 묵직함이 좋아서란다. “사람이 많은 유럽의 돌은 무릅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조각술이 발달한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외장재로 쓰기가 힘들습니다. 특히 추운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내장재로 쓸 수밖에 없어요.” 돌도 열기 때문이다. 이물질이 돌 틈에 들어가 열고 풀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직업에 후회가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 부산과 경남에는 그의 시간과 땀이 스며든 작품들이 한둘이 아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기념관 옆에 세워진 흥남철수작전 기념탑이 그의 작품이며, 석조건물로 지어진 경남 김해시청도 그의 솜씨가 빛어낸 걸작이다. 부산에서 유명한 4.19기념탑을 용두산공원에서 해체해서 대청동 중앙공원으로 옮겨 복원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해체 당시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아 여간 애를 먹지 않았어요. 공사도 중탑 내부를 조여 주는 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그나마 문 대표의 풍부한 경험과 솜씨 덕에 두 달 만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이 정도면 멋진 삶이 아닙니까. 비록 공부를 못했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돌의 덕(德)을 묻는 질문에 문 대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도(正道)를 지키라는 뜻이다.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게 지름길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말은 울림이 크다.

문 대표가 예를 하나 들었다. 부산 유엔모지에 참전용사비가 있는데 조성 당시 돌은 호주에서, 동판은 홍콩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런데 획이 하나 틀린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적당히 땀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완전히 새로 제작하더군요. 이게 바로 정도라고 여겼고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문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노임 지급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는 철칙이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전날 돈을 미리 찾아놓을 정도다. 그게 정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석재 사업을 하면서 느낀 철학이 있다. 돈보다 자신의 가치를 살리라고 권한다. 마치 인내력으로 돌을 연마하듯이 자신을 돌처럼 여기며 갈고 닦으라는 것이다. “정성이 들어가야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다루는 돌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을까요.”

문 대표의 말을 듣다 보니 ‘착한 경쟁’이 떠오른다. 과거의 자신과 경쟁하며 미래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열심히 배우는 것,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착한 경쟁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말이다.

글\_ 최원열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건설인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입니다.”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고민한다고 흘러간 물이 되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슬프든 분하든 과거는 묻어버리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라. 과거의 원한과 씨름하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떠올리는 이가 있다. 유재봉(64) 옥산건설주식회사 대표.

그는 미소를 달고 산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밝고 긍정적인 자세만으로도 온갖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과거의 원한을 잊으라 하지만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오히려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갚고자 한다. ‘받은 이상으로 베풀자’를 인생좌우명으로 삼은 까닭을 알겠다.

그의 지나온 삶은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맞을 듯하다. 밀양 출신인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 내려와 당시 최고의 직장으로 쳐주던 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공장이 들어섰던 1953년

당시 월급으로 동천 주변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고, 김해평야 논 10마지기를 사들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될 정도이니 더 말해 뵈하라!

하지만 그는 3년 만에 '신의 직장'을 박차고 나온다. 승진 기회가 적을뿐더러 자기 발전이 안 되겠더라는 게 마음에 크게 걸렸단다. "정년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를 만나 소주잔을 기울였는데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했더군요. 이는 온통 빠졌고, 확 늙었더라구요." 일벌레로 저녁은 물론 일요일과 명절 근무까지 자청했던 그가 퇴직 후 얻은 것이라곤 3층짜리 작은 건물 한 채. 대신에 사랑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잃었다. 자식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족소풍의 추억조차 없는 그가 건물마져 날릴 처지에 있다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고요."

회사 다닐 때 앵글로 보는 세상에 폭 빠졌던 취미를 살려 동네에 사진관을 차리고 10년 넘게 했다. 당시 사진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됐다. 하지만, 아뵐씨! '2% 부족하다'고 느꼈던 욕심이 그를 완전히 딴 세상으로 몰고 갔다. 승승장구하며 돈맛에 취한 그는 식품유통업에 뛰어들었다. 직원을 30여명 거느린 사장 행세에 취했다. 방만한 경영이 뒤따른 건 당연지사. 지인들에게 돈 관리를 맡겨둔 채 흥청망청 즐기다 보니 회사가 순식간에 기울었다. 결국 환란의 해였던 1997년 부도라는 청천벽력 같은 매질을 당했다. "그 많던 돈이 온데간데없더군요. 큰 아이 대학 등록금을 댈 길이 없어 한 해 휴학을 시킬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자빠질 유 대표가 아니었다. 마음을 모질게 다잡고 오뎅이처럼 다시 나섰다. 건설회사 영업직원으로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현장직으로 발령 나자 미련 없이 그만뒀다. 그런 그에게 '수호천사'들이 손을 내밀었다.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를 눈여겨본 동료들이 "도와줄 테니 건설회사 한번 해보라"며 권했던 것이다. 유 대표의 본격적인 건설 이력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시운도 그의 편이었다. 노태우 정권 당시 '주택 200만호 사업'은 건설 활황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하자보수업은 순풍에 돛단 듯 가파른 오름세를 탔고, 유 대표는 불과 3년도 안 돼 그 많던 빚을 다 갚았다.

일에 있어선 찰거머리 같은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한 토막.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지금의 두산중공업) 진주지사에 찾아가 일거리를 달라며 읍소했다. 담당 직원이 대기업에서 일한 실적도 없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며 퇴짜를 놔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

러서지 않았다. 그러기를 반년. 그가 나타나면 직원은 저승사자를 만난 듯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뒤를 유 대표가 쫓아가는 '놀이' 끝에 마침내 직원이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웬걸, 3개월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도저히 적자를 면할 길이 없어 그 직원을 다시 만나 하소연했다. 그러자 직원이 "사실은 당신을 떼어 내려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맡겼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더라. 이후 한국중공업 일을 싹쓸이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아예 묻지도 않고 "오케이" 했다. 거래 은행에서는 청하지도 않은 VIP카드까지 내주더라.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걸 '도전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된 삶을 산다고 자신했다. 과거의 원한과 아픔을 사랑과 은혜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는 동래구 낙민동 오르막길에 있는 사무실이 동네 어르신 사랑방이라며 자랑했다. 어르신들이 가쁜 숨을 쉬며 들어와서는 "키피 한 잔 달라"고 하면 얼른 소파로 모신다. 필요하면 짐도 들어주고, 리어카도 끌어준다. 전구 달기나 수도꼭지 교체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게 그의 소박한 기쁨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모셔다 음식 대접을 해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 삶의 화두는 당연히 사랑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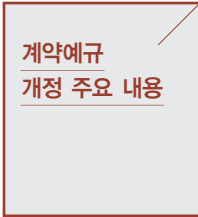
맞다.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아름다운 말은 존중을, 아름다운 행동은 사랑을 불러온다고. 유 대표는 말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준다.

글\_ 최원열



##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4월 11일 자로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2017.4.11.】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계약 기준과 일치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나.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부도업체 중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포함

다. 재난복구공사 평가대상 범위 명확화(조문정리)

- 50억에서 3억 → 50억에서 30억, 30억에서 3억, 3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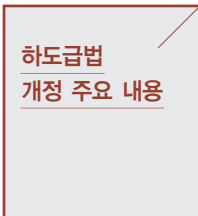
2. 시행일자: 2017.4.17.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4.18., 법률 제14814호】

1.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 현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구를 삭제하여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및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2. 시행일자: 2017.10.19.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 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빨리 움직이고  
무언가를 깨부셔라.  
성공을 잡아채라.  
누구보다 빨리.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

# MANAGE- MENT

이달의 경영어록

“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걸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창조하라.  
—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창업자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Q&A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헛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다.

•• case.01

### 장병검사부대매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Q.**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홍보담당 간부 乙을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甲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1호).

A는 제삼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1항, 제23조제2항). B는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乙은 제삼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이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제7조제1항, 제2항),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case.02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Q.** ○○파출소 순경 甲은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기를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는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달라고 부탁했고 甲이 이를 묵인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3호). A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적발 사실을 묵인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case.03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Q.** 일반 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 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과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제1호).

•• case.0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甲,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乙은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甲과 乙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60만원/3명)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ase.05

**집에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음식물 등 가액 평가**

**Q.**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는 A법무법인 대표 B는, 소송사건을 맡겨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송 담당과장 甲과 소속직원 乙, 丙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한 경우, 음식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1인당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

**A.** 식사초대 시 음식물 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B, 甲, 乙, 丙이 함께 식사를 하였으므로, 총 음식 접대비 1/4을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case.06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 여부**

**Q.**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A.** 100만원 기준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건설업 무등록 시공 및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안내

● 부산시회는 4월 10일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건설부조리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협회에 적극 신고(건설정책과, ☎051-633-0260)하여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신고대상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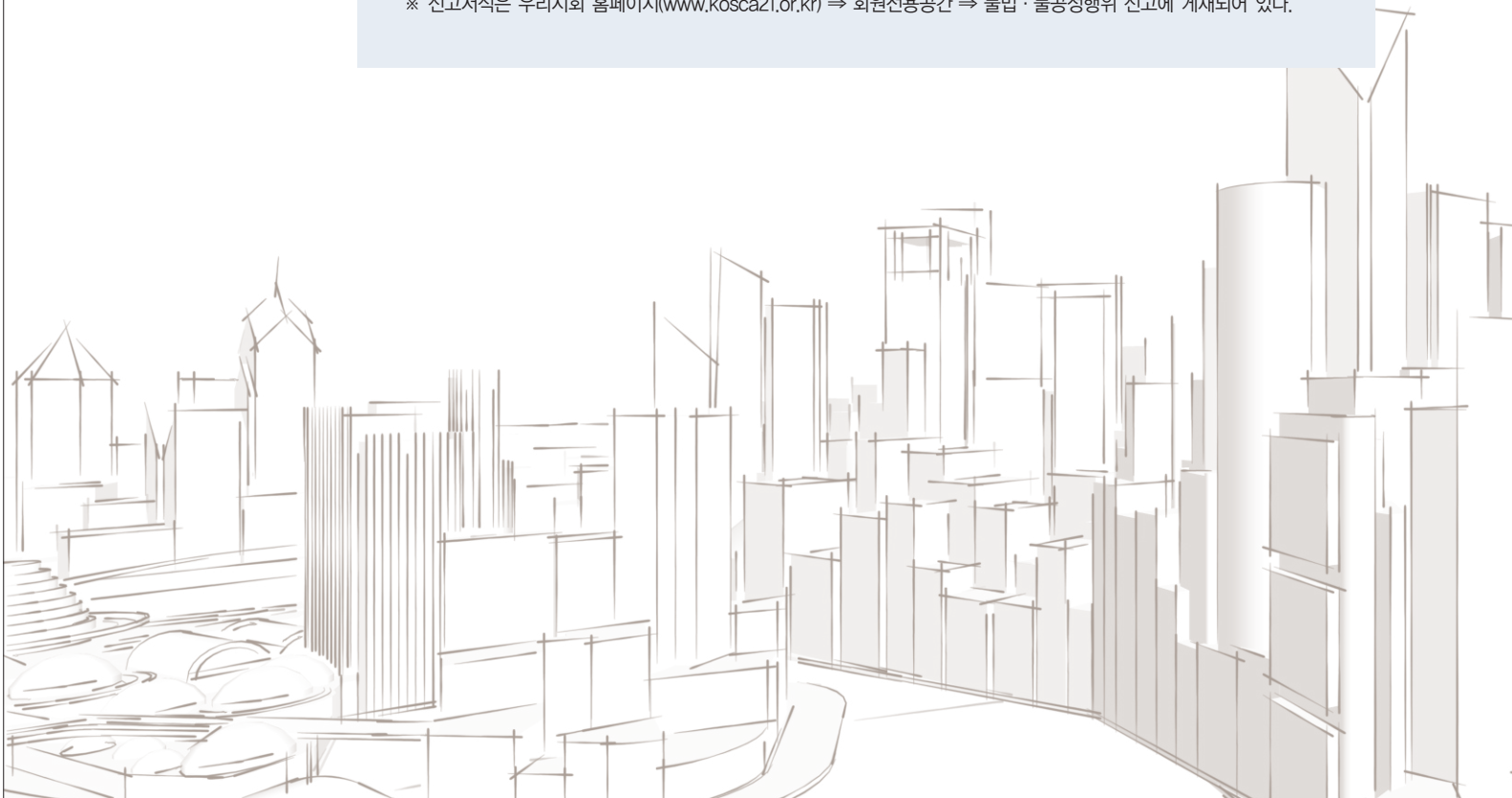
#### 1.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2.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등

※ 신고서식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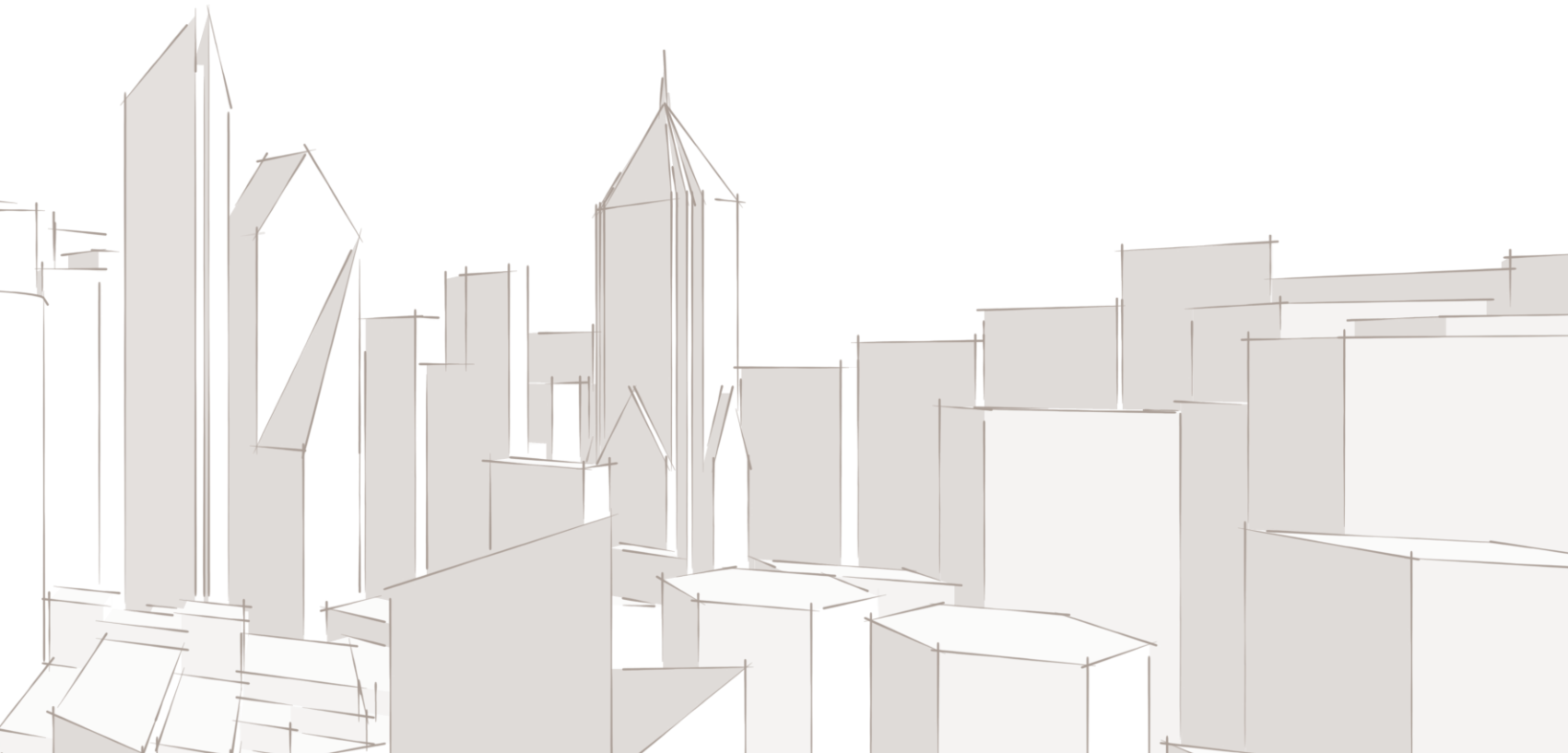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안내

- 부산시회는 4월 19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장별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함에 유의!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적발 사례 안내

- 협회는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시 불공정하도급행위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관한 제도개선 및 집중조사를 건의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설정'으로 적발한 사례 및 관련 보도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부당특약 설정 적발사례

#### 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 전가

(하도급계약서)

- 을은 공사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업무 및 비용 처리를 책임 처리한다.

(현장설명서)

- 안전사고로 인하여 ○○(주)의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이 부담한다.

#### ② 환경관리와 관련한 비용 및 책임 전가

(특기시방서)

- 당 공사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을이 처리한다.

#### ③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 발생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및 책임 전가

(특기시방서)

- 공사수행상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 및 조기작업 또는 작업 시간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제출 견적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하도급계약서)

- 본 계약 공종의 현장 작업 중 돌관 작업과 야간 작업이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이는 계약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단가에 견적 제출 시 감안된 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 정산은 없다.

#### ④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법 제16조의2) 제한

(특기시방서)

- 물가변동(인건비 등)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총 공사계약금액의 5% 이내의 추가 정산은 없음으로 계약한다.

(현장설명서)

- 본 공사는 을의 직접견적에 의한 책임 시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정산을 요청할 수 없다.

### ⑤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 〈현장설명서〉

#### 〈일반사항〉

- 현장설명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비에 포함하며, ….
- 수급사업자는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물량증가 및 설계도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공종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 〈설계변경〉

-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 최종수량정산은 도급설계에 준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물가변동〉

- 당 공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단가상승을 감안한 조건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기타 계약변경〉

- 인건비상승 … 이에 따른 공사비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는 … 어떠한 경우도 적자보전 및 단가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민·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자 배치 및 근무 철저 안내

###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관리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배치 의무

-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3장(시공감사)'의 규정에 의거 시 분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각 구(군)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로 참여한 건설업체 및 참여 건설기술자가 관련 법령 미준수에 따른 부실 벌점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의 협조 요청이 있어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 위반 사례

-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

#### ○ 위반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치 사례

- 품질시험계획서 미수립, 품질관리기술자 미배치  
→ 부실측정 처분
- 배치된 품질관리기술자 현장 근무 미수행 및 무단 이탈  
→ 해당 기술자 과태료 처분 또는 3회 이상 적발 시 자격정지 의뢰

#### ○ 관련 법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업자는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
- ▷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등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관련 별표5

-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배치

### ● 위반 시 제재사항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 제2호: 시정명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 라목: 영업정지 1개월~3개월
- ▷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7호: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2개월~3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2호: 과태료 30만원

##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 협조

### 실사 현장 추천 저조... 현장 실사는 개정을 위한 필수 작업

-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된다.

그러나, 품셈 개정 전 선행 작업인 실사를 위한 현장 추천이 저조하여 품셈 개정업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상향이 필요한 품 항목 또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2018년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에 대하여 불합리한 품셈 항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편, 현재 2018년도 적용 품셈 개정 대상 항목은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인터넷교육 이수 진행 중인 자는 과태료 처분 면제,

###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 미이수 시 연기 신청 가능

- 부산시회는 5월 16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23.)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전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개정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교육기간을 3년 유예하여 '17.5.22.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기관 부족 및 교육신청 폭주 등으로 인해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가 많은 관계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17.5.22.까지 온라인교육을 신청한 후 인터넷교육 진행자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2017.5.2.)」을 개정하였다.

#### ● 설계·시공분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 '17.5.22.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로서 '17.5.22.까지 온라인교육을 신청하고 인터넷교육 이수 진행 중인 자는 과태료 처분 면제

※ 인터넷교육【기본교육(28h)+전문교육(28h)】을 신청하고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 중이어야 함.

▷ '17.5.22.까지 인터넷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집체교육【기본교육(7h)+전문교육(7h)】은 온라인교육 신청 시 선택한 일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하여야 최초교육 이수 완료됨.

#### ●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1년간 일괄 교육기한 연장('18.5.22.까지)

▷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17.5.22.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 이수기한도 '18.5.22.로 교육기한 연장

또한, 부산시회는 6월 7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만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관련 사항을 재차 안내하였다.



####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 신청

▷ 대상자: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5.22.까지인 건설기술자 중 교육 연기 사유 발생일이 '17.5.22. 이전인 자

▷ 교육연기 신청기한: '17.8.31.까지

▷ 연기사유: 해외출장 및 연수, 출산 및 육아, 질병, 입대, 결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등

▷ 연기신청 후 이수기한: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연기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등)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에서 신고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문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02-3416-9431~5) 또는 통합콜센터(☎1577-5445, ARS 안내번호 1번)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안내

- 부산시회는 공동주택 발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 보수·관리교육」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해당되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교육신청서를 다운, 작성하여 선착순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인원
'17.7.13.(목) 13:00~17:30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	200명
'17.9.19.(화) 13:00~17:30	인천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원동 대강당	300명
'17.10.19.(목) 13:00~17:30	전북(전주)	전주시청 대강당	200명

### 2.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해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등

### 3. 신청방법

국도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kistec1833@naver.com)로 직접 제출(선착순)

### 4. 기타사항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시회 건설정책과(☎051-633-0260)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도 경영상태 평가 및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정

● 우리협회에서는 7월 3일 정부·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2016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정하고 2016년도 공사실적 확인서 및 2017년도 경영상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201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 201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조적	석 공	도 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80.50%	84.56%	83.49%	57.06%	67.79%	88.35%	84.86%
유동비율	145.30%	166.13%	110.02%	236.43%	128.68%	124.44%	142.35%

구 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부채비율	99.74%	78.59%	59.76%	90.30%	197.89%	65.26%	65.68%
유동비율	106.88%	176.66%	176.14%	152.12%	121.61%	203.77%	170.74%

구 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	삭 도	준 설	승강기설치
부채비율	108.17%	87.00%	107.07%	176.98%	123.86%	182.58%	98.96%
유동비율	115.02%	111.89%	145.48%	106.11%	58.09%	132.80%	111.8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0.10%	-	0.08%	-

※ 적용기간 : 2017년도 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공시 전까지 사용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99.45%로 전년(103.60%)대비 △4.15%포인트 낮아졌으며, 유동비율은 평균 140.12%로 전년(129.80%)대비 10.32%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석공이 57.06%로 가장 낮았고 철도·궤도가 19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부채비율은 14개 업종이 낮아졌으며 석공(△43.50%)과 철강재설치(△45.45%)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내건축(4.24%), 도장(6.66%), 보링·그라우팅(1.51%), 철도·궤도(75.95%), 포장(4.05%), 강구조물(21.47%), 준설(21.93%) 7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 유동비율은 석공이 236.43%로 가장 높고 삭도설치가 58.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동비율은 15개 업종이 높아졌으며 석공(132.90%), 토공(42.14%)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내건축(△4.94%), 미장·방수·조적(△3.23%), 상·하수도설비(△17.34%), 철도·궤도(△21.6%), 수중(△6.89%), 준설(△8.56%) 6개 업종은 유동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 2017.7월말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관련 제증명서(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가 발급되고,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가 시작된다.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하고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공시한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이다.

## 2017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내국인 구인 노력(14일) 반드시 필요...

-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외국인력 채용 절차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1. 고용허가 신청 접수 : 7.3.(월)~7.17.(월)

2.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900명 +  $\alpha$ \*

\* $\alpha$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3. 고용허가 발급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 내국인 구인 노력(구인업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고용센터) →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4. 고용허가 신청요건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함(공사현장별).
  - ※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 ※ 고용허가 신청업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5.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 노력 한 경우 7일
  - ※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유 권 해 석

## 01 유권해석

## 석면해체·제거공사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함)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는지?

##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제처-16-0542(2016.11.21.)

## 02 유권해석



##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 【질의】

[1] 현장설명 견적조항 중 일부 조항(‘을’은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도 적자보존 및 단가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초 설계누락 부분의 시공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에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규정은 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민원내용의 현장설명 견적조항 중 일부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있었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금조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추가 시공을 할 경우, 이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시공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 판례

# 03 건설판례

##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 회원사 질의·응답

### Q.01 2개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1건에 중복 투찰할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2절. 12. 다. 2)에서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2개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 Q.0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제2015-610호, 2015.8.20.】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음.

※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 Q.03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에 한해서는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대금지급 여부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인(종합건설업체)과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3자 합의 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Q.04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및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등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품질관리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 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등)와 중복배치가 불가함.



## Q.05 하도급공사 타절 시 건설공사대장 통보방법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새로이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하도급공사 계약 타절 시에는 타절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및 수령금액은 타절시점 기준으로 수령한 기성금액으로 변경하고, 준공일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간도 타절일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별도의 기성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키스콘에 [건설공사대장 삭제 요청]하여 해당 건설공사대장 전체를 삭제 요청해야 함.

## Q.06 공동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인 주택과 이상인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주자 또는 시행·시공사에 과세·면세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비율에 맞게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과세·면세 비율에 맞춰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Q.07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 시 계약서상 착공일자를 어떻게 결정하며, 계약 후 며칠 이내 착공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라 공사의 착공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함.

따라서,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착공해야 함.



## Q.08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율은?

»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2015-4호, 2015.6.30.】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내일을 예측하고 싶지만 1년, 2년, 3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의 시대에서는 그 예측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이고 무엇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그 변화의 속으로 함께 산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지속해서 다가오는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미래 산업을 바꿀 혁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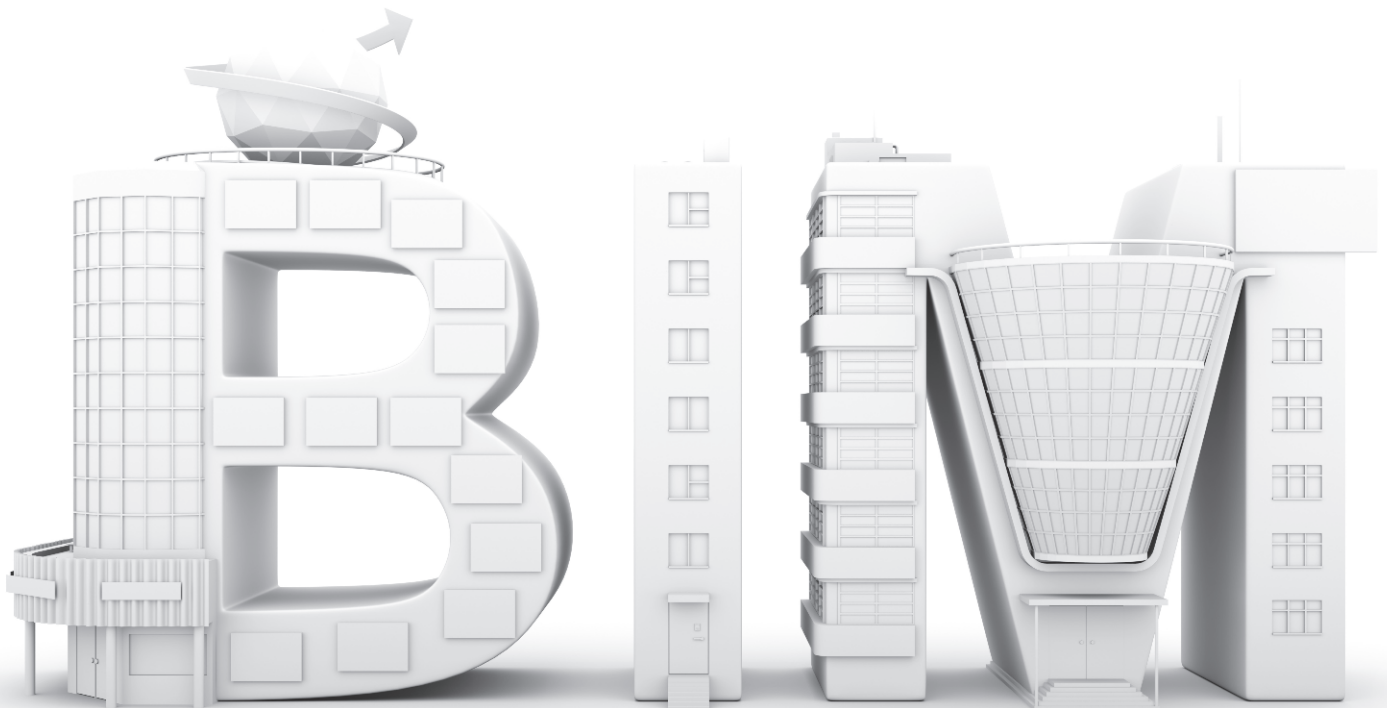
제10편

### BIM (빌딩 정보 모델링)

#### BIM(빌딩 정보 모델링)이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써 건축물의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 건축물의 기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에 관계된 여러 정보를 통합한 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BIM 기술의 활용으로 건축설계를 기존 평면(2D)에서 입체(3D)로 한 차원 높임으로써 기존의 2차원 도면 환경에서는 달성이 어려웠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사업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건물 설비 교환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설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열 성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실제 건축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 BIM의 장점

- 1 정확한 물량 산출이 가능하고, 공기상의 위험성도 체크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견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로 신뢰 하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문제인 입찰과 금액 상의 불투명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원가 계산과 공사 과정, 기간 산출로 건설 사업의 안정성과 생산성, 상호 간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2 손쉬운 설계변경과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BIM은 해당 데이터를 변화하면, 관련 정보들이 연동하여 일제히 변동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쉽고, 3D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며, 디자인 된 새로운 공간의 느낌과 효용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 3 설계와 시공의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된다. BIM은 모든 과정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 축적으로 무한의 효용성을 갖게 된다. 이는 최초 디자인에서 시공과 운영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기초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축적된 정보는 향후 다른 건물과 관련 건축분야에 적용하여 무한한 변화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의 토양을 제공하게 된다.

외국 BIM 기반 유명 건축물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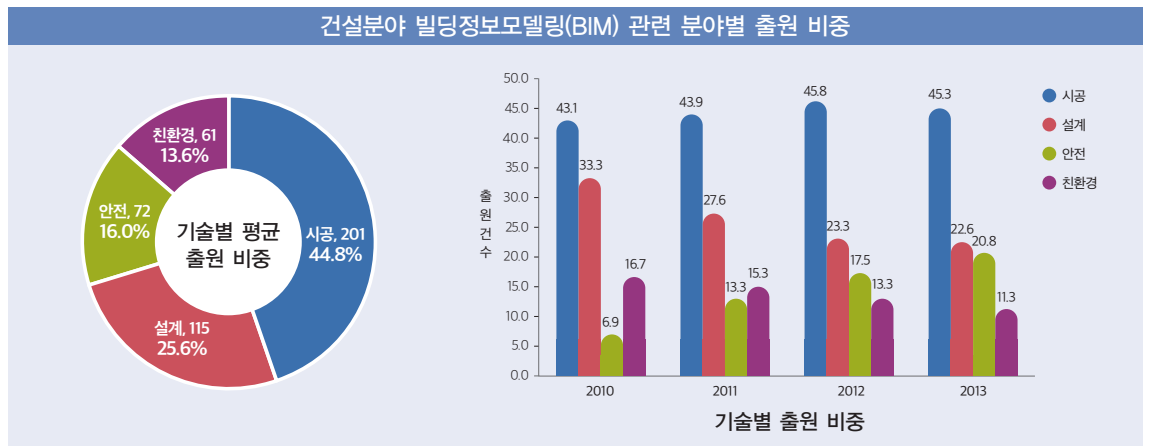


캐피탈 게이트, 아부다비, 2011      프레임타워, 아제르바이잔, 2012      상하이 타워, 중국, 2014

### BIM 전망

특허청에 따르면 건설분야 BIM 출원은 2012년 120건, 2013년 15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달청은 단계적으로 BIM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6년 시설사업 전체에 BIM을 적용시켜 공사관리, 공사계약, 총 사업비 검토 업무에 BIM데이터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중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건설분야 빌딩정보모델링(BIM) 관련 분야별 출원 비중





## 2017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기고

# 두바이, 스페인에서 우리의 비전을 보다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회장님을 필두로 회원사 28명, 협회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함께 떠난 '해외 선진건설현장 시찰'은 두바이부터 시작되었다. 여행 계획 수립은 수년 전 본인이 돌아본 곳이라 갈 곳, 볼 곳, 여러 액티비티가 포함된 일정을 여행사와 수차례 미팅 끝에 결정하여 떠났지만, 힘들고 짧은 일정의 여행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아쉬워야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 연합국) 7개국 중 한 나라로 1882년 영국과 '독점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유럽 간의 중계무역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 수입원은 천연 진주였는데 1930년 일본의 진주 양식 성공으로 대

공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아부다비와 국경문제로 전쟁을 치르는 등 악재가 겹쳤으나 1966년 유전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배를 타고 구시가지를 둘러보고 7성급 돛배 모양의 '부르즈 알 아랍'이 보이는 '주메이라' 해변을 거쳐 모노레일을 타고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본 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8m) '부르즈 칼리파' 빌딩의 124층 전망대로 향했다. 삼성물산이 지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멋진 빌딩들을 보다가 문득, 40~50℃를 넘나드는 열사의 나라(사우디 등)에서 청춘을 바쳐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선배들을



생각하며 잠시 머리 숙여 본다.

호텔에서 3시간여 쉬고 다시 세계 최대의 두바이몰을 보니 수족관 등 규모가 어마어마하였다. 또한 멋진 2층 식당 테라스에서 세계 3대 분수쇼를 식사와 함께 구경하는 호사도 누렸으며, 이 럭셔리한 저녁은 중앙회 신홍균 회장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라는 회장님의 긴급 발표에 참석자 모두는 환호와 함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즐거운 분수쇼 관람을 이어갔다. 다음날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터번을 두르고 사막 지프투어로 짜릿함과 스릴을 맛보며 두바이의 대미를 장식했다.

우리가 본 것은 사막의 세계 최대, 최고 등이었다. 또한, 2020년이면 고갈되는 자국의 석유자원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외국의 투자유치 등 혁신적 생각을 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향후의 방향은 관광산업이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랬듯 우리의 인공조형물도 후대를 위한 유적이다."라며 미래지향적 해안과 통치력을 보여준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스페인으로 향한 우리 일정은 검은 마리

아상이 있는 '몬세랏 수도원'을 거쳐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먼저, 자신의 투자자인 구엘에게 바친 '구엘 공원'을 본 후 가슴 떨리도록 웅장한 '성가족성당'으로 향했다. 천재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혼을 담은 이 창조물은 1883년에 짓기 시작하여 가우디의 사망 100주년 기념해인 2026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스페인은 기원전 카르타고의 영토였으나 3차에 걸친 포에니전쟁의 패배로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이때 로마에서는 '해 지는 서쪽의 땅'이란 뜻인 'Hispania'라고 불렀다. 오늘날 미국에서 불리는 '히스패닉'이란 말도 스페인어를 쓰는 라틴 아메리카인이란 뜻의 어원이 되었다.) 415년 경에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고트 왕국'으로 불리었고, 711년부터 장장 781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릴 때 500주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스페인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1492년으로

- ① 국토회복전쟁(레콩키스타)을 통해 마지막 이슬람국가인 그라나다를 정복하여 이슬람으로부터 해방된 해
- ② 이사벨 여왕의 후원하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다.

이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후 어마어마한 부국의 길을 열어 수많은 식민지와 원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무적함대 '아르마다'로 해양을 제패했던 그들은 늦게 바다로 눈을 돌린 영국의 해적 출신 '드레이크'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한 우리는 옛 수도였던 톨레도를 둘러 그리스 출

신의 화가 '엘그레코'의 작품을 감상했다. 이어서 웅장한 톨레도 대성당을 거쳐 프라도 미술관에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대작 '시녀들', '고야'의 전후반기 작품 등으로 눈과 마음을 호강시켰다. 마지막 날에는 스페인 광장의 '세르반테스'의 걸작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의 동상에서 한 컷 간직하고, 마드리드의 중심 스킨광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끝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식사 때마다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주신 회장님, 젊은이 못지않게 일정을 소화한 원로 선배님들, 협회 행사에 처음 나온 일반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 하도급 분쟁 해법

### 【기술사용료 특약】

#### 낙찰자가 기술사용료 부담한다는 내용은 부당특약이라 무효

건설공사에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표준계약서에 우선하는 각종 특약을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자치라는 명목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며, 그 침해가 중대하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급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부가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된다.

A는 지방자치단체 갑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절차에 참여해 공사대금 5억7,000만원의 인공시설물 설치공사를 낙찰받았고, A는 해당 공사를 위해 B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공법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용료로 7,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다.

A는 공사를 완료한 후 위 기술사용료 7,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설계변경을 갑에게 요청했지만 갑은 공사가 총액입찰제로 실시됐고, 기술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내됐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경비'를 산정할 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의 특허권사용료'를 '경비산정'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공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은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2.11. 선고2001다33604 판결 참고).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기 전, 꼭 챙겨야 할 건강수칙이 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일지라도 건강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악몽이 될 수 있는 만큼, 들뜬 마음은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한 준비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출처\_ 질병관리본부 / 정리\_ 김미선

## 즐겁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해외여행 안전수칙



### 여행 전

- ①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 ② 예방접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③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한다.
- ④ 기존 복용약물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등을 준비한다.
- 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⑥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 계획이 있다면 보험의 보상내용 및 범위를 확인한다.

### 여행 중

- 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다. 여의치 않다면 60% 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 젤을 사용한다.
- ② 생수나 탄산수 등 포장된 음료만 마시는 게 좋다.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는다.
- ③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섭취하고,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피한다.
- ④ 야외 활동 시에는 팔과 다리를 덮는 긴 옷을 입어 자외선과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 ⑤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여행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귀국 후 반드시 1339(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한 후 병원을 찾아야 한다. 1339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한 후, 신고자를 집 근처 보건소와 연결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①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②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 ③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④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 ⑤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7. 4. 1. ~ 6.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공간산업개발 김봉미	부산 금정구 노포사송로 123, 지1층 (노포동) T : 051-555-3738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더파빌리온 전형달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4-10, 1층 T : 051-728-8070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보링그라우팅	 동경개발건설(주) 김미옥	부산 금정구 금강로 659, 302호 (남산동, 삼전빌라) T : 051-513-6800 보유업종 : 미장 · 방수 · 조적	
 디자인인드플러스 정경화	부산 해운대구 APEC로 17, 12층 1209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T : 051-931-1259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부마건설 김미영	부산 강서구 경전철로 211, 3층 (대저2동) T : 051-941-7183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부창건설 조재용	 (주)부창건설 김수금	부산 사상구 모라2동 1361 모라동원상가 9-402 T : 051-317-066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신형케미칼 김준호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16 (대저2동) T : 051-973-4365 보유업종 : 도장	 (주)하비아이에프 우동기	부산 금정구 두구로51번길 2 (두구동) T : 051-508-088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알엔비이엔씨(주) 김현호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94, 201호(하단동, 티파니빌라트) T : 051-203-1636 보유업종 : 강구조물	
 에이스종합조경(주) 하선영	부산 금정구 수림로62번길 14, 3층(장전동) T : 051-332-3673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예일개발 천정숙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1번길 29 (개금동) T : 051-644-5301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오션스개발 김정희	부산 서구 충무대로 154, 302호 (남부민동, 모피코빌딩) T : 051-248-7475 보유업종 : 수중	
 (주)유경개발 김유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6-1, 2층 T : 051-724-9800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유승토건(주) 이연옥	부산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40, 506호(화명동, 한빛프라자) T : 051-503-6980 보유업종 : 포장	 (주)인현건설 성석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46 T : 051-727-9798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재은건설(주) 박인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92번길 53, 4층(남항동2가) T : 051-416-9235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상 · 하수도설비	 (주)창조건설 백지현	부산 남구 수영로 14(문현동) T : 051-638-8846 보유업종 : 실내건축	 친화건설(주) 윤병식	부산 수영구 연수로385번길 11 (수영동) T : 051-895-9006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케이피에스주(KPS Co.,Ltd) 권순욱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774번길 11, 10층(좌동,海天빌딩) T : 051-809-8391 보유업종 : 수 중	 하니해상개발(주) 임창수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808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T : 051-818-9673,4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하은건설 임혜수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510호(거제동, 정림빌딩) T : 051-507-5260 보유업종 : 미장 · 방수 · 조적 금속구조물 · 창호	

[2017. 4. 1. ~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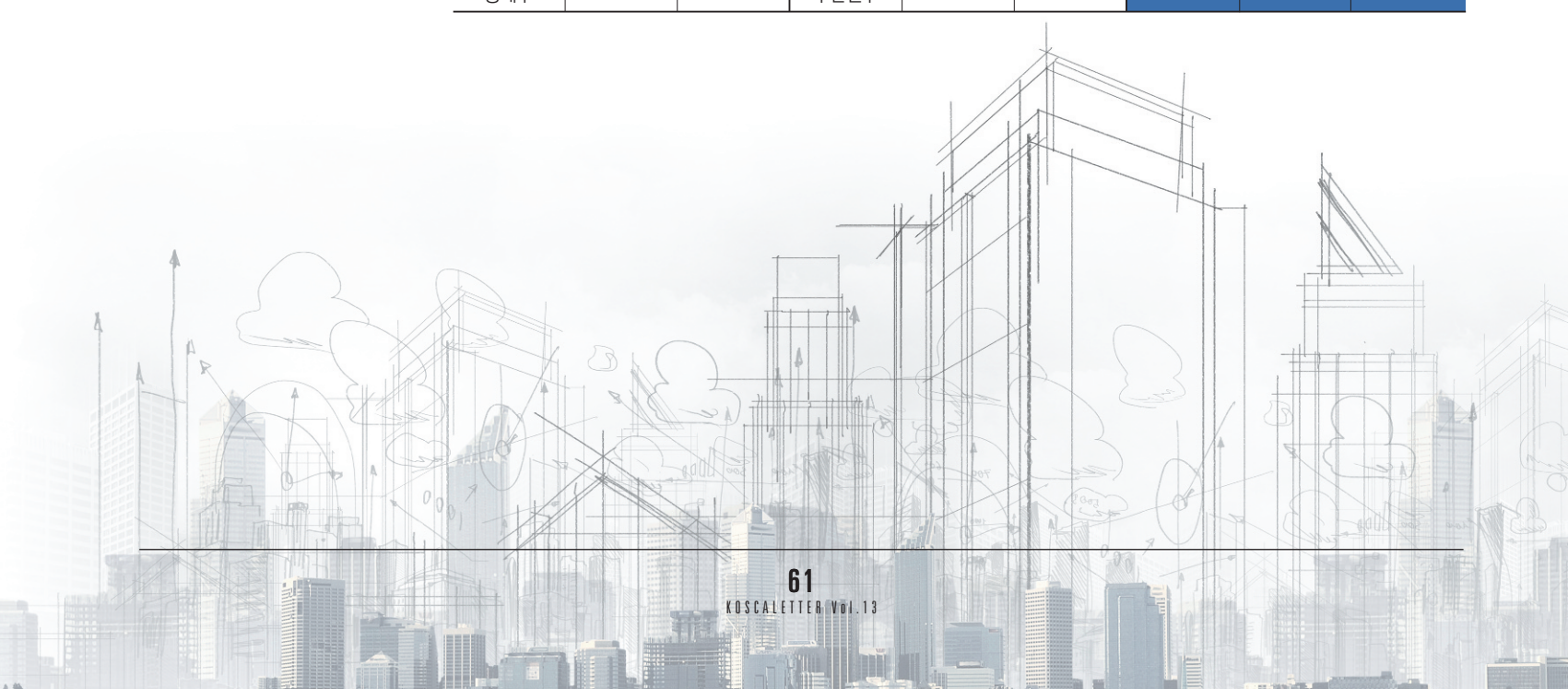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명인테리어(대표 : 임대근, 울산)	(주)동일개발(대표 : 이명인, 경남)
(주)보만이엔씨(대표 : 곽두현, 경남)	모닝(주)(대표 : 손성우, 경남)
(주)웅비건설(대표 : 박기한, 경남)	미소건설(주)(대표 : 양진숙, 울산)
	보담건설(주)(대표 : 조용용, 경북)
	상아(합)(대표 : 신현숙, 강원도)
	(주)서원아이앤디(대표 : 이지훈, 경남)
	(주)성우피엔에이(대표 : 류용일, 경남)
	(주)에스엘토건(대표 : 김명순, 경북)
	엠앤케이산업개발(주)(대표 : 박용근, 서울)
	우리환경산업(주)(대표 : 서영석, 서울)
	한동건설(주)(대표 : 전용봉,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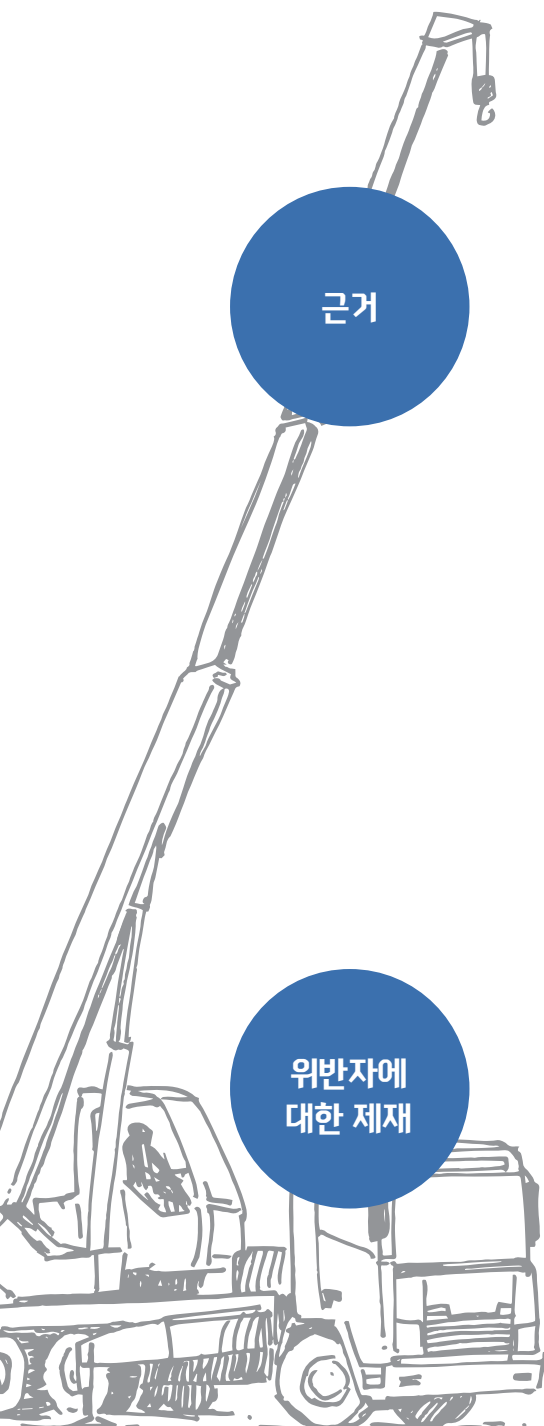
[2017. 6. 30. 기준]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9	65	남구	97	143	북구	73	96
동구	48	100	금정구	222	334	사상구	120	145
서구	26	31	연제구	140	220	강서구	174	242
사하구	72	96	해운대구	201	269	기장군	194	291
영도구	23	34	수영구	109	161	합계	1,867	2,698
동래구	161	209	부산진구	178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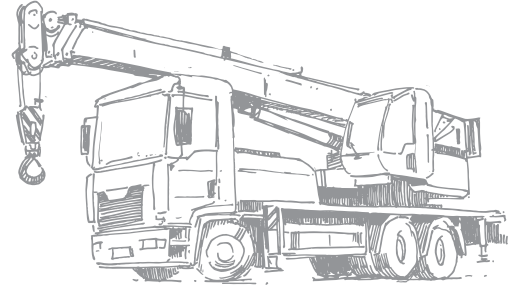
## 건설업자의 책무



근거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확인)

-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착수와 동시에 배치하고,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기술자의 현장 이탈 금지의무 및 발주자의 건설기술자 교체 요청권(도급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로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 수 등을 별도 정할 수 있음).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 종류의 공사(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행정처분(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및 동법 제82조제1항제5호(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업자):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행정형벌(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4호(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2호(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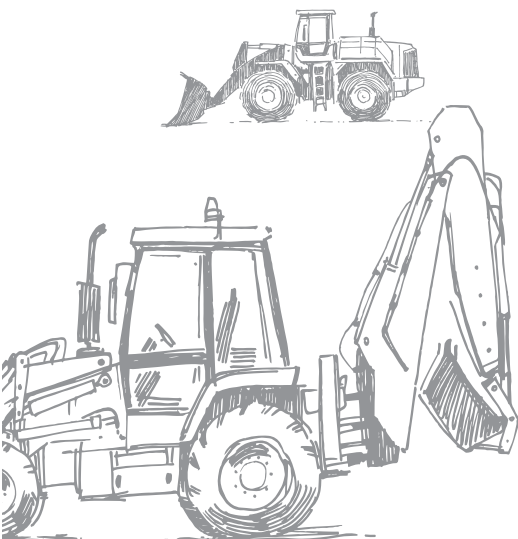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시행령 제35조 제2항별표5】

#### 비 고

- ❶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 ❷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 ❸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 ❹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 ❺ ★ 전문 건설업자가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❻ ★ 전문 건설업자가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b>700억원 이상</b>  (법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b>500억원 이상</b>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b>300억원 이상</b>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b>100억원 이상</b>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b>30억원 이상</b>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b>30억원 미만</b>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17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1. 교육과정

### 가. 교육일자 및 장소(부산)

회차	교육일자	교육장소
3차	2017. 11. 2.(목)	부산교원빌딩(☎051-602-3003, 부산역 광장 옆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지하2층)

-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나.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다. 교육대상 :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 2016. 2. 11.)]
- **교육 참석대상자**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 대표자

라. 교육시간 : 1일 8시간(9시~18시)

마. 교육비 :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2. 신청방법

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나.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중앙회(회장 신흥균) 회장단은 6월 8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 김정우 자문위원과 면담을 갖고 업계 4개 분야 11가지 현안과제를 선정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시공의 전문화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발주의무화 ▲전문건설사가 초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의 실정을 감안한 정산방식 및 퇴직공제부금의 원가반영 요율 인상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 ▲생활밀착형 SOC투자 확대 등이다.

▷ 중앙회(회장 신흥균)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 목록을 포함한 부당특약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이는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하도급법령 개정 및 심사지침 제정으로 도입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부당특약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령개정으로는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고시 제정에 부당특약 약정 총 14개(계약체결 단계 6개, 공사수행 단계 4개, 대금지급 및 준공 단계 4개)를 지목해 건의했다.



## 부산시회 2017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 일정
2017. 7. 21(금)	2017회계연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산행
2017. 8월 중	2017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2017. 9월 중	2017년 신규회원사 간담회
2017. 9월 중	업종별 전체회의



# 코스카레터즈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남건설(주)  
**구정분** 대표이사

**코** 스카레터를 읽을 때마다 좋은 정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포인트를 주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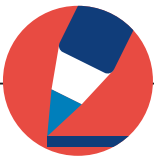
건설정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용한 정보까지 항상 유용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독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개발(주)  
**신선호** 과장

**코** 스카레터에 수록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이나 판례 등의 내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하자보수기간의 반영 등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사례들과 내용을 좀 더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디자인마인드플러스 대표 **정경화**
- 조원산업(주) 경리이사 **강점순**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토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몇 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2017.8.31.(목)까지)하시면 추첨하여 (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IBK Card**  
**KOSCA**

